

# 약물요법 (Ⅲ)



**엄동춘**

(서울대학병원 내과 · 수간호사)

이번호에는 실제적인 인슐린 주사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실제적인 인슐린주사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 1) 준비물은 깨끗이 보관하며
- 2) 적절한 주사부위를 선정한다.

- 2) 인슐린용 주사기(단위에 맞는)
- 3) 소독용 솜
- 4) 인슐린 주사부위 그림표
- 5) 당뇨수첩(주사부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주사놓은 부위를 수첩에 적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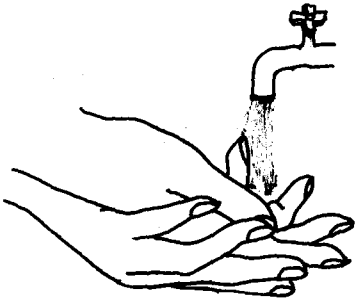
**인슐린 주사가 끝나면 주사부위에 알콜솜을 대고서  
주사바늘을 뽑아낸 뒤, 알콜솜으로 주사부위를 부드럽게 2초정도 눌렀다 떼다.  
이 부분을 문질러서는 안된다.**

- 3) 주사용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4) 실온에서 주사한다.
- 5) 인슐린과 주사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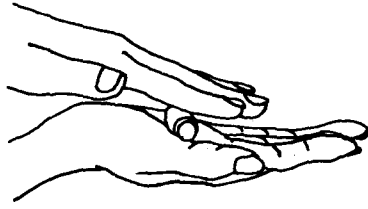
인슐린 주사시 준비물로는

- 1) 처방된 인슐린

환자에 따라 주사약의 종류와 용량이 틀리며, 한가지 인슐린을 맞는 경우와 두가지 인슐린을 섞어서 맞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는 한가지 인슐린으로 중간형 인슐린주사를 맞는 경우의 주사약 준비법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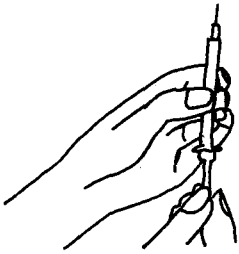
1. 손을 깨끗이 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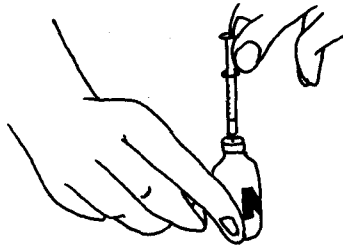
2. 인슐린 병을 양손 바닥 안에 넣고 그림과 같이 천천히 굴려 인슐린이 서로 섞이도록 한다. 단, 절대로 인슐린병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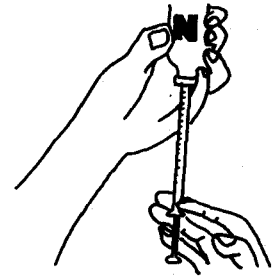
3. 알코올솜으로 인슐린병의 고무마개 부분을 닦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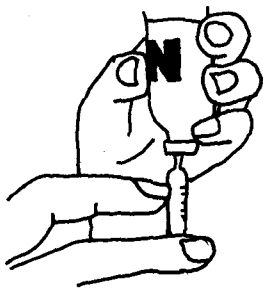
4. 주사기 플런저(plunger)를 필요한 눈금까지(인슐린 뺨을 양만큼) 잡아당겨 주사기 내로 공기가 들어가도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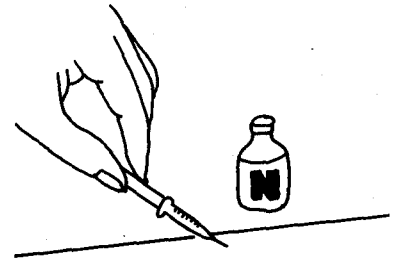
5. 인슐린병을 그림과 같이 하여 주사바늘을 병의 고무마개 속으로 꽂고 플런저를 민다. 그러면 주사기내의 공기가 인슐린 병속으로 들어가므로 인슐린 빼기가 쉽다.



6. 인슐린병과 주사기를 거꾸로 쥐고서, 플런저를 서서해 당긴다. 이때 주사기내에 공기가 없으면 플런저 끝을 투여량 눈금까지 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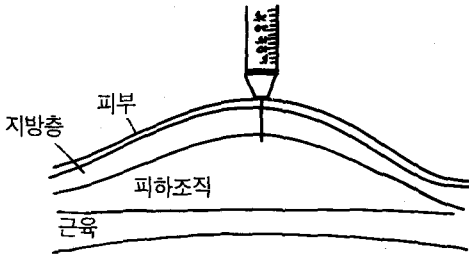


7. 만약 주사기 내에 공기가 있으면 제거한다. 즉, 손가락으로 주사기의 공기 있는 부분을 가볍게 친다. 공기가 주사기 끝으로 올라가면 플런저 끝을 투여량 눈금까지 민다. 거품이 있는 채로 주사해도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양의 인슐린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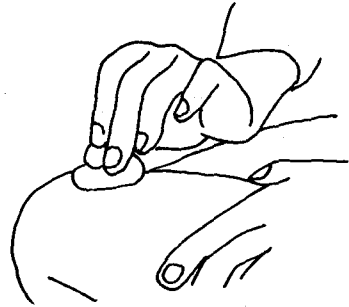


8. 그 다음 주사기를 인슐린병에서 빼내 주사할 때까지 평면상에 둔다. 주사기가 다른 것에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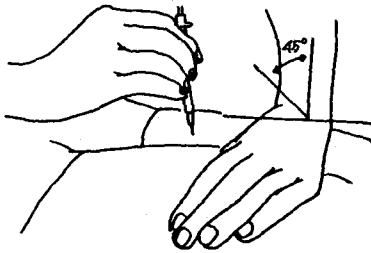
이와같이 주사약을 준비하여 다음과 같이 주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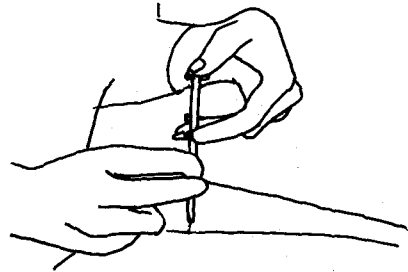
1. 피하조직이 있는 곳에 주사위치를 정한다. 피하조직은 피부아래의 지방층과 근육층 사이에 있다. 신체에서 피하조직이 있는 곳은 팔 상부외측, 대퇴부 전면과 측면, 등의 허리선 바로위, 둔부, 그리고 배꼽과 허리선 주위를 제외한 복부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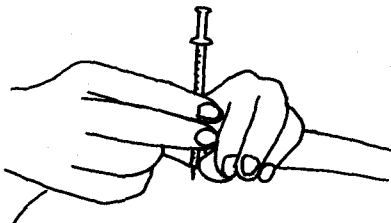
2. 알콜솜으로 주사부위를 소독한다. 이때 알콜솜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되, 중심에서 시작하여 외측으로 나아간다. 알콜이 마르도록 몇 초간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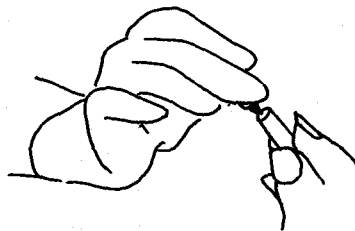
3. 주사기 바늘이 다른 곳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쥜다. 주사기 바늘에 뚜껑을 씌워둔 경우는 그것을 벗긴다. 피부를 약 2인치 두께가 되도록 잡고서 주사바늘을 45도에서 90도사이의 각도로 하여 단번에 재빨리 피부를 찌르도록 한다.



4. 2인치 두께로 쥐었던 피부를 놓은 다음, 한손으로는 주사기를 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주사기 플런저를 밀어 인슐린을 주사한다. 3-5초 내에 인슐린 주사를 끝내도록 한다.



5. 인슐린 주사가 끝나면 주사부위에 알콜솜을 대고서 주사바늘을 뽑아낸뒤, 알콜솜으로 주사부위를 부드럽게 2초정도 눌렀다 떼는다. 이 부분을 문질러서는 안된다.



6. 사용한 주사기의 재사용을 막기위해서 주사바늘 뚜껑을 이용하여 바늘을 전후로 굽혀 못쓰게 만들거나 아이들 손이 닿지않는 곳에 보관 후 일주나 이주일 정도분의 주사기를 소각시키는것도 위험스럽지않고 좋다.